

## 21대 총선 광주·전남 예비후보 5명 중 2명 범죄경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 지 1달이 지났다. 총선에 나서는 광주·전남 예비후보자 5명 중 2명은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교통 관련법·국보법·집시법 위반 등 대다수

청소년 강간해 처벌 받은 예비후보도 등록해

따르면 19일 기준 광주와 전남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95명 가운데 39명이 전과기록 83건을 제출했다. 읍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법 위반 사례가 25건, 민주화운동이나 사회운동 과정에서 얻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20건으로 주를 이뤘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광주남구갑)·

한기선(국가혁명배당금당·광주남구갑)·노남수(무소속·광주북구을)·김길수(혁명배당금당·광주광산구갑)·박시중(민주당·광주광산구을)·김성호(혁명배당금당·광주광산구을)·노승일(무소속·광주광산구을)·강화수(민주당·여수시갑)·김영득(민주당·순천시)·정동호(혁명배당금당·순천시)·신정훈(민주

당·나주시화순군)·고주석(혁명배당금당·광양시곡성군구례군)·윤광국(민주당·해남군완도군진도군)·강상범(혁명배당금당·해남군완도군진도군)·최일식(혁명배당금당·영암군무안군신안군) 등 예비후보 15명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해 처벌 받았다. 이 중 한기선·노남수·김길수·강화수·정동호·강상범·최일식 예비후보 등 7명은 두 차례 이상 교통 관련법을 어겨 처벌됐다. 강간과 같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예비후보도 있다. 광주 광산구갑 지역구에 출마할 뜻을 밝

힌 조만진 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는 청소년을 강간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7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가장 많은 전과를 가진 이는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에 출마하겠다는 최일식 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50)였다. 그는 읍주운전, 공동상해, 상해 등 8개 전과기록을 냈다. 범죄전력이 있다고 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선관위는 국민의 알권리와 올바른 선거관행을 보장하기 위해 재산, 학력, 전과기록과 같은 후보자 정보를 공개한다. 뉴스

### 광주시 해외시장개척단 3월부터 16개국 파견한다

광주시는 3월부터 중소기업 80여곳이 참여하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전남KOTRA지원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광주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해외시장개척단은 해외에서 종합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현지바이어와 기업별 주력상품 수출상담을 주선해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인도·러시아·중동 등 16개국 22개 도시에 파견한다. 시는 해외시장 개척단 참여기업에 항공료(1명) 70~50%,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시장조사비 등을 지원한다. 참여업체 모집은 해외시장개척단별로 매월 10개 업체를 선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파견 전 2~3개월 전에 공고되는 안내문을 참고해 소정의 신청서를 수행(접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오는 22일까지는 3월에 추진하는 인도시장개척단(3월8~15일)을 모집 중이다.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올해 해외시장개척단은 신형시장으로 떠오른 인도, 러시아, 중동 등을 중심으로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현지바이어 매칭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역사적' 여순사건 재심재판 1심 선고에 관심 '촉각'



여순사건 재심재판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원의 '역사적'인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여순사건 재심재판은 20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중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의 심리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고 장환봉씨는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순천에 도착한 후 이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체포돼 22일 만에 처형됐다. 이에 대해 장씨의 딸(재심 청구인)은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고 재심을 청구, 대법원은 7년여 만인 지난해 3월

21일 재심개시를 결정했고 1달 후인 지난해 4월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첫 재판이 진행됐다. 첫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의 판결서가 없어 4·3사건처럼 공소기간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혔고 세번째 재판에서도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며 실제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처럼 재판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시민사회단체도 나뉠 역할을 펼쳤다. 여순사건재심재판대책위는 1948년 당시 신문기사, 외신기자의 탐사보도, 국회속기록, 판결집행명령서 등을 발굴해 시민설명회를 거쳐 지난해 6월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검찰은 4번째 재판에서 장씨의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에 속도가 붙었다. 검찰의 장씨에 대한 공소 요지는 '14연대 군인들이 전남 여수시 신월리 여수일대를 점령한 후 1948년 10월20일 오전 9

무죄판결까지 구형했다"며 "지역사회 한 일원으로서 검찰의 결정에 대책위원회는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감사를 전했다. 재심 청구인인 장환봉씨의 딸 장경심 씨는 결심공판 직후 진술에서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억울한 분들을 위로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강조하기도 했다. 검사의 무죄구형 이후 지역에서는 역사적인 무죄 선고 가능성에 큰 기대를 하는 모습이다.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희)는 지난 16일 여순사건 재심재판부에 피고인의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檢, 공소기간 우려에도 공소사실 복원→무죄 구형  
지역사회, '무죄 선고'로 피해자 명예회복 기대

시30분쯤 열차를 이용해 순천역에 도착하자 이들과 동조·합세해 순천을 일원에서 국권을 빼앗고 통치의 기본질서를 교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열린 6차 재판에서 "장씨의 형명 제7조 내란죄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국권 문란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환영 성명을 통해 "이번 재판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공소 기간이 우려됐으나 검찰이 공소사실 복원에 이어

강경희 위원장은 "여순사건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건으로 유족들은 지난 72년의 긴 세월동안 통탄의 세월을 견뎌왔다"며 "재판에서 명쾌한 판결이 내려져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을 지켜봐온 시민사회단체들도 20일 선고공판 직후 재판결과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히겠다고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무죄판결에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여수=김도현 기자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게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